

광주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1천229억 '역대 최대'

전년비 18.5% ↑ ... "지역밀착경영·포용금융 실천 결과" 금리인상 관련 포용금융대출 2%p ↓ 등 선제적 대응도

광주은행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천229억원을 달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집계한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천22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천37억 원 대비 18.5%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1천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천379억원보다 18% 가량 늘

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과 연체비율 모두 0.29%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BIS자기자본비율 15.30%, 보통주자본비율 14.47% 등 제반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주은행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당기순이익 1천965억원 달성에 이은 이번 성과는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평소 강조

하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바탕으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실현하는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을 통한 영업기반 확대와 탄탄한 내실경영 추진에 따른 결과로 은행측은 진단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사상 첫 빅스텝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지역밀착경영과 고객중심의 현장경영,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

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최근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의 중저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대출 금리 2.0%p 인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0%p 인하 ▲개인사업자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7.0% 초과대출 최대 1.0%p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중저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을 강구해 시

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리 상승기 도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전략 추진 ▲채널 최적화 전략과 비용 관리 기반의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통한 미래 수익기반 확대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기업그룹 1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지역 재무사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금융위원회 2021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소형은행 1위 ▲광주시 금고 및 광산·동·서·남·북구 5개구 금고의 전남은행 선정 ▲전남 시지역(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 전체 금고 석권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 광주·전남 최초 가입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중저민 지원에 따른 괄목할만한 굿직한 경영성과를 거두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졌으며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서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기수회기자

신보기금 신입 호남영업본부장에 여수 출신 이강근 감사실장 취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신입 본부장에 이강근(55·사진) 감사실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 신보기금에 입사해 여수지점장, 채권관리부장, 광산지점장, 감사실장 등 영업 현장과 본점 주요 사업 부문을 두루 경험한 중소기업 전문가다.

이 본부장은 "기본과 고객 중심에서 가치를 키우는 신보기금"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보증 지원과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해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기수회기자



휘발유값 4주째 하락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4원 내린 리터(ℓ)당 1937.7원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최상준 홀' 현판식

'그림이 있는 비즈니스룸' 조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최근 '그림이 있는 비즈니스룸 최상준 홀' 현판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최상준 남하토건 명예회장이 소장 중인 국내 유명 화가의 다수 작품과 음향시설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상준 남하토건(주) 명예회장, 차용훈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장생불노신선부'(長生不老神仙府 : 장수하고 늙지 않는 신선들이 사는 고을)처럼 지역 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고 장수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성수 광주경진원 이사장은 "경제 진흥의 선도기관으로 최상준 회장의 뜻을 받아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장수하고 늙지 않는 신선들이 사는 고을)처럼 지역 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고 장수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성수 광주경진원 이사장은 "경제 진흥의 선도기관으로 최상준 회장의 뜻을 받아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영향"...지역 6월 광공업 생산 희비 갈렸다

호남동계청 조사, 전년비 광주 2.5% ↑·전남 2% ↓

지난달 지역 광공업 생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으로 주력 생산 제품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전남은 18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전기장비(-15.2%), 기계장비(-13.1%), 금속가공(17.4%) 등에서 줄어들었으나, 주력 생산 품목인 자동차(6.7%)와 전자부품(14.6%)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같은 기간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파업 피해가 크지 않아 주력품목 생산에서 희비가 갈렸다고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광공업 출하와 재고에 있어서는 광주·전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광주·전남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5.1%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전자부품(20.1%), 자동차(1.8%), 담배(746.5%)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19.3%), 기계장비(-10.2%), 금속가공(-19.1%) 등이 감소, 전남은 화학제품(-12.5%), 석유정제(-4.2%), 기계장비(-42.8%) 등이 줄고 기타 운송장비(45.5%), 전기·가스업(14.8%), 식료품(1.4%) 등은 늘었다.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 1.5%, 전남 15.7% 증가했다.

광주지역 광공업 재고는 기계장비(-5.4%), 석료품(-85.6%), 금속가공(-38.0%)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22.7%), 전기장비(43.2%), 고무 및 플라스틱(5.3%) 등이 증가, 전남지역은 석유정제(-7.1%), 식료품(-20.9%), 섬유제품(-14.7%) 등에서 줄고 화학제품(23.4%), 1차금속(23.8%), 고무 및 플라스틱(26.7%) 등에서 늘었다.

한편 지난달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7로 백화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판매는 2.8%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전남 또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80.4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지난 1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양시원기자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액 1위

광주 '삼지도건'·전남 '도양기업'

올해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광주는 삼지도건(주), 전남은 도양기업(주)이 1위를 차지했다.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액(7월 말 기준) 산정 결과 광주는 삼지도건(1천211억3천500만원)이, 전남에서는 도양기업(1천305억7천100만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광주 지역 1천422개 전문건설업체, 전남지역 3천95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광주에서는 삼지도건에 이어 (주)지영건설(840억4천500만원), 대전산업개발(주)(697억2천700만원), (주)이화건설(633억7천200만원), 안산조경(주)(600억8천만원) 등이 상위그룹을 형성했다. 광주 상위 10위 업체 중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8개 업체로 강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도양기업에 이어 다스코(주)(662억1천400만원), (주)신진건설산업(647억8천800만원), 정품건설산업(주)(637억8천600만원), 대야산업(주)(587억6천만원) 등이 5위권을 형성했다.

상위 10개 업체 중에는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이 6개에 달했다.

/기수회기자

남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시간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엔 200여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